

##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테리’ 사이에서 —북한의 교사상과 교원의 사회적 지위

조정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1. 들어가며

교육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틀지음으로써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교육의 사회재생산 기능은 북한 교육에서는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에서 교육은 해방 후 국가 형성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통치당론 재생산을 통하여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돌파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일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의 기본 사명은 “사람들을 그 사회제도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키우는 데 있”으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봄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sup>1)</sup>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북한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교육이 사회의 정치경제적 요구 또는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특정한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교육을 통해 특정한 인간형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기존 사회의 질서를 재생산해내는 순환 고리의 중심에 ‘교사’가 위치해 있다.

북한에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나 문화의 전수자가 아니라 ‘직업적 혁명가’로 규정된다. 교육이 사회의 상부구조와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시키는 혁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므로, 교사도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혁명을 직업으로 하는 혁명가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사는 혁명의 주체세력인 노동자계급과는 달리 이중성과 동요성을 지닌 ‘인테리’<sup>2)</sup>로 분류된다. 북한의 교사들은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테리’ 사이의 긴 스펙트럼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재생산의 거대한 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교육의 앞날이 ‘위’로부터의 의도대로 전개될지는 북한의 교사들이 국가와 당이 요구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상으로 수렴될지 아니면 ‘동요하는 인테리’로 퉁겨져나갈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에서 교사의 위상과 교사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상적인 교사상에 관한 공식적 담론을 중심으로

1)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357쪽.

2) 북한의 『정치사전』에 따르면 인테리란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으로 정의된다. 즉 직업적으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망라한 개념으로서, 국가주권이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별되는 집단이 아닌 사무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테리’라고 부른다. 교사는 이중 사무직 인테리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지식인’은 ‘인테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박가연,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연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10쪽). 북한의 지식인관과 인테리 정책에 관해서는 김명수(1996), 이교덕(2002), 박가연(2003) 참조.

살펴본다. 이는 북한의 국가와 당이 어떠한 이념적 도구와 논리를 동원하여 학교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을 교육을 통한 사회재생산의 동력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또한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실지 생활 조건과 교직 및 교사에 대한 학생과 일반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경제난이 가속화됨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교사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교육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보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에서 간행된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대상이 된 자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과 각 시기별 교육학 관련 교과서 및 교육학 이론서, 『로동신문』, 『교원신문』 등의 신문, 교육 관련 소설과 모범 교원 수기 등이다. 특히 북한의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육학 관련 교과서들은 국가가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공식적인 교사의 역할과 교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한 연구에는 항상 분석자료로 공식문헌을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수반된다. 이 연구 역시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는지를 주로 분석했을 뿐, 정책 의도를 넘어서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스스로 교사라는 직업과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 연구 수준의 답보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인 ‘위로부터의 관점’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고자 교사와 중등학교 학생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자료를 활용했다. 이러한 구술자료는 현장연구의 가능성이 없는 북한교육 연구에 있어 실지로 전개된 교육의 모습과 교육의 장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구술자료는 연구

자가 체록한 교사 출신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3인의 구술과 선행연구를 통해 공개된 북한 교사 출신자 3인의 구술자료이다. 교사 출신 북한 이탈주민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교사로 활동했으며, 두 명의 고등중학교 졸업자는 각각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고등중학교<sup>3)</sup>를 다녔다. 연구에서 인용한 구술 자료와 관련된 인명은 가명을 사용했다. 단,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원자료의 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 2.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교사

북한에서 교육의 목적은 “수령과 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키워내는” 것이다.<sup>4)</sup> 한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육성·계발시키는 ‘사회화’는 사회체제를 막론하고 교육이 수행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북한에서도 역시 학교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북한 사회 체제를 유지,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지닌 인간으로 양성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교육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화의 의미 이외에도 문화혁명의 주요한 도구로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 즉, 사회혁명에 의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 사회체제가 변화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 사회체제의 낡은 사상

3) 북한에서는 2002년 8월에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학교명을 개칭했다.

4)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41쪽.

잔재가 오래 잔존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합한 사상의식을 불어넣어야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켜나갈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직업적 혁명가”로 규정된다. ‘직업적 혁명가’란 혁명을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보고 혁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육 자체가 혁명의 일부로 여겨지므로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하나의 직업인을 넘어서서 혁명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혁명가로 규정되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이나 전달하는 사람, 밥벌이를 위하여 교단에서 지식과 기술을 ‘상품’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 한생을 바쳐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이 강조된다.<sup>6)</sup>

그렇다면 직업적 혁명가로서 교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북한 최고의 사범대학인 김형직사범대학의 사범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교사는 “주체형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 그 어떤 이색적인 요소에도 물들지 않은 인간인 ‘원종’”이 되어야 한다.<sup>7)</sup> 교육은 인간을 대하는 활동이므로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상·정신적 특성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진취성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혁명가로서의 투철한 공산주의 사상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 때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5)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357쪽.

6) 한선희·김영준 편, 『교육심리』(평양: 교원신문사, 2001), 370쪽.

7) 김형직사범대학 사범교육연구소, 『사범교육에 대한 위대한 령도』(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992), 8쪽.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원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 사범대학용 교육학 교과서<sup>8)</sup>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적 혁명가이자 공산주의자로서의 정치사상 도덕적 태도와 됨됨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또한 조직성과 규율성, 혁명적 원칙성, 겸손성, 소박성 등이 교사에게 필요한 정치·사상·도덕적 태도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자적 양심과 책임감을 들고 있는데, 이는 누가 지켜보는 것에 상관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와,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도덕적으로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견실하고 청백”하며 말과 행동이 학생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함께 “풍부한 인간성”을 교사가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으로 꼽고 있다.<sup>9)</sup> 이는 교육활동이 사람을 대하는 활동이며, 그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품성으로 여겨진다. “인간성이 부족하고 인정미가 없으며 심장이 뜨겁지 못한” 교사가 아닌 “다정다감하고 풍부한 인간성”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바람직한 교사의 인간성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어머니다운 품성”이라고 일컫는다.

이와 함께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능력 또한 교사의 중요한 자질이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접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학 이론과 교

8)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9) 한선희·김영준, 『교육심리』(평양: 교원신문사, 2001), 382쪽.

수방법론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이상적 교사상은 ‘혁명가’로 통칭할 수 있지만, 혁명가로서의 교사가 의미하는 바는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북한의 이상적 교사상에 관한 수사는 후대들에 대한 교양자에서 문화혁명가, 주체형 혁명가, 숨은 혁명가로 시기별로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1948년에 인민학교 및 중학교 교사용으로 출판된 『교수론』에서는 교육과 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능력과 관습을 주는데 있다”라고 기술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sup>10)</sup> 물론 이 시기의 교육학 관련 서적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방식이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적 특성이나 정치적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책이 교사용 서적으로 출판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교사의 혁명성을 강조하는 이후 시기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산업국유화와 농업집단화 등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재편이 완료되면서부터는 사회주의적 문화혁명가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1960년에 출판된 사범대학용 교육학 교재에서는 교사는 “아동의 심리적 및 정신적 풍모에 영향을 주어 그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는 인간 정신의 기사”라는 소련 학자 칼리닌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교사는 후대들의 교양자일 뿐만 아니라 “문화혁명의 투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sup>11)</sup> “문화혁명의 투사”로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고, 봉건적인 요소를 반대하고 공산주의적 요소

10) 로동신문사 편, 『교수론』(평양: 로동신문사, 1948), 4쪽

11) 김일성, “시, 군 인민 위원회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58. 8)”, 『김일성 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sup>12)</sup> 1950년대 후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력 재편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의 교사상은 아동과 성인 학습자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지식 전달자이자,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의 변화에 비하여 지체되어 있는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로서의 위상이 강했다.

1950년대 후반의 ‘반종파투쟁’과 1960년대 후반의 소위 ‘갑산파 사건’이라고 불리는 정쟁과 반대세력 숙청,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의 후계자 공인과 당내 실권 장악 등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혁명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의 반종파투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정치사상의식, 특히 김일성 중심의 노선과 사상관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 간주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견지할 것과,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에 반대할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교원의 교육적 지향성”이라 하여 교육활동과 아동에 대한 “육친적 사랑”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덕목으로 제시되었다. 아동에 대한 교사의 사랑은 아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라는 데에서 출발하며, 학생들을 귀중히 여기고 홀륭하게 육성하려는 염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진실하고 소박하며, 육친적 사랑을 기울이는 데서 표현된다고 했다. 이는 이후 시기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통하여 김일성 반대 세력이 제거되고, 이후 각급 학교에서도 5·25 교시집행정형종화라고 하는 후속적인 정치적 숙청작업이 단행되었다. 이후 교사 양성 및 교육에 있어서 김일성 중심의 단일한 영도체계의 정통성을 인식시키는 것과 수령에 대한 충실히성이 핵심적인 것으로 강조되었다.<sup>13)</sup> 김일성은

12) 교육도서출판사 편, 『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352쪽.

1967년 7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교원대열의 정치사상적, 계급적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밝히고, 교사들 속에서 불건전한 자들이 학생들을 잘못 교양할 수 있으므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8년 3월 연설을 통하여 6개월 내지 일년간의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교사들 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이들을 당정책의 선전자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sup>14)</sup> 이에 따라 1968년 2월부터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조선로동당정책사 과목 수업이 시작되었고, 1969년 9월에 각 대학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과”가, 1970년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 강좌가 신설되었다. 또한 1969년부터 중앙과 각 도에 교육간부정치학교가 설치되어 각급 학교 교사들이 정치사상교육을 비롯한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오랜 인테리’라고 불리는 해방 이전 시기부터 재직해온 교사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교양이 강화되었고, 사범대학의 입학 조건으로 계급적 토대를 강조하게 되었다.<sup>15)</sup> 1973년 12월에는 사범교육부문을 비롯한 모든 교육부문에 3

13) 이 시기에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 “김형식, 강반석 따라 배우기”가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으로 들어왔다. ‘공산주의도덕’ 교과 수업이 196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되었고, 뒤이어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 과목이,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서 ‘김일성 동지의 로작’ 과목이 신설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는 고등중학교를 마친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 ‘직통생’들은 혁명화되지 않은 ‘병신 인테리’ 혹은 ‘양반 인테리’가 된다고 하여 군대나 직장 경험을 통하여 당성을 겸증받는 것이 대학 진학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1968.10)”,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348쪽.

14)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1968. 3)”,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15) 1960년대에 교사의 혁명성이 강조된 것은 1967년 갑산파사건으로 불리는 정치투쟁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교육계 내에서 이러한 정치투쟁이 무엇을 쟁점으로 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현재적 서술을 통하여 교육 부문과 관련된 정치적 반대 세력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대 혁명소조를 파견하고 교사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1970년대 초반에 교육학 이론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1971년 12월 김일성은 전국교원대회에서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을 완성할 것을 지시했고, 몇 년간의 연구작업 끝에 1974년에는 『사회주의아동심리학』, 1975년에는 『사회주의교육학』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1975년에 출판된 『사회주의교육학』에서는 교사는 “밥벌이군이 아니라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명시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원의 역할은 새 세대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것과 함께 근로자들 사이에서 당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과학기술지식과 현대문명을 보급하며 여러 경제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에는 ‘주체형 혁명가’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를 “‘스승’과 ‘선각자’로, ‘인간정신의 기사’”로 보는 관점은 교사를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 “도덕적 계몽자”로 보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비판을 받게 된다.<sup>16)</sup>

1960년대에 출판된 모범교원 수기를 통해서 ‘주체형 혁명가’로서 교

---

1992년에 출판된 책에 따르면 당시 당내의 반대세력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외곡하고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훨뜯으려 했으며 특히 사상사업분야와 교육사업분야에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 반혁명사상을 퍼뜨리려고” 했다. 이들이 내세운 교육이론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는 빨갛고 파랗고 하는 것이나 가르치면 된다는 식으로 자연주의적 교육리론”이자 “로동계급적선이 모호한 범벽교육”이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김형직사범대학 사범교육연구소, 『사범교육에 대한 위대한 령도』(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992), 129~130쪽. 구체적인 교육 이론을 파악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비판으로 미루어보아 당내 반대세력들은 아동에 대한 지나친 정치사상교육 편향성을 비판하고, 보다 객관적인 과학기술과 지식의 교육을 중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 리영복, 『교육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211쪽.

사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1963년 말에 출판된 모범교원 수기<sup>17)</sup>는 교사 김일완이 학급의 “자유주의자”와 “말썽꾼대장”을 사랑으로 교화하여 당시 전사회적으로 진행되었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일환인 ‘모범 분단 쟁취운동’과 ‘모범 학급 쟁취운동’에 참가시키는 과정을 상세히 그리고 있다. 교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당의 두터운 신임을 대표하는 학교 당세포 위원장의 격려에 의해 고무되어 학습에서의 집단적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육친적 사랑”을 구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sup>18)</sup>

1965년 말에 출판된 모범교원 수기의 주인공인 전광춘은 1958년 대안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수자와 문자들을 통해서 매시기 제기하는 당의 의도를 그들의 생활에 담겨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을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sup>19)</sup>는 생각으로 수학 교수에서 당정책 교양을 결부시키기 위한 교수 방법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59년부터 1965년까지 당정책과 김일성 현지 교시, 인민경제계획 자료, 곡식 수확량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15권의 당정책 연구록, 80여 권의 자료집, 12권의 수학응용문제집을 작성했다. 수학응용문제집에는 다양한 당정책을 수학 교과서의

17) 김일완, 『혁명의 씨앗을 키우며』(평양: 교원신문사, 1963).

18) 교육자의 ‘육친적 사랑’과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온정주의적 지도-피지도 관계에 대한 강조는 같은 시기 공장의 작업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천리마 작업반장 길학실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작업반장이 작업반원의 생활을 보살피는 행위는 어머니가 식구들을 돌보는 행위, 더 나아가서 노동자에 대한 수령의 ‘육친적’ 보살핌과 동일시되었다. 모범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를 지도했던 방식은 ‘궁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방법으로 명명되면서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통하여 사람을 개조하는 기본 원칙으로 천명되었고, 학교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교육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산업화 시기 공장에서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통한 온정주의적 질서의 구축에 관해서는 조정아, “산업화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2003) 참조.

19) 박상암·우제국·전광춘, 『두 영웅 교원』(평양: 교원신문사, 1965), 115쪽.

각 단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응용문제의 형태로 만들어 수록했다. 그는 초기에는 “당정책 절반 수학 절반 선생”이라는 비난조의 별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시도한 수학수업을 통한 정치교육은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의 수업이 수학과 정치교육 양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그가 시도한 수업 방식은 수학수업의 모범으로 널리 선전되었다. 이 수기는 김일완의 수기와 유사한 구도와 전개방식을 취하지만, 학생들과의 관계보다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천리마기수’식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교사의 열정과 헌신, 교육 내용상 정치적 색채를 띠기 어려운 순수자연과학 교과 수업을 통해 정치사상교육을 시도하는 교사의 정치적 충실성이 강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라는 변형된 수사가 등장했다. 이는 1979년에 시작되었던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은 1980년대 초반 경제와 공업 생산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대중운동이다. ‘숨은 영웅’이란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국가 발전에 남다른 공헌을 하고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을 의미한다.<sup>20)</sup> 차문석에 의하면 초인적인 영웅으로부터 ‘보통 영웅들’로의 방향 전환은 산업화 시기에 지속되었던 ‘기록 타파적’인 영웅 스펙터클이 더 이상 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 어졌다. 영웅을 일상적인 존재로 확산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생산과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영웅과 동일시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

20) 차문석, “북한의 근대 정치경제와 노동 영웅”,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근대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서울: 청어 램미디어, 1990), 324~325쪽.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숨은’이라는 수식어가 좀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활동과 다르게 교사의 교육활동의 결과는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교육은 행동 조절 능력과 사고가 미숙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인 애정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동일한 교육적 노력과 지도도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은 그 성과가 즉시 외부로 드러나는 혁명활동이기보다는 ‘숨은’ 혁명활동이며, 이들의 혁명적 열정과 노력은 긴 시간의 강을 건너서 이들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때 빛을 보게 된다.

1982년에 출판된 한 편의 교육 소설은 천리마학급청호쟁취운동과 같은 집단적 성적경쟁이나 교사가 만든 교편물 수로 교사의 혁명성을 평가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교사의 자질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의 두 주인공인 인민학교 교원 인순과 선옥은 각기 ‘숨은 혁명가’와 구시대적인 기록 타파적 영웅을 대표한다. 선옥은 학급 학생들을 엄격한 규율로 다스리고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집단적인 통제를 통해 매번 학교의 성적경쟁총화에서 일등을 놓치지 않는 교사이다. 그러나 선옥의 학급에서 아이들은 수학시험의 답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거나, 엄격한 교사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전학을 가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적경쟁에서 뒤처져왔던 인순은 일률적인 복습지도보다는 “어린이들을 더 세심히 돌봐주고 수업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학습에 대한 자각성과 창발성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인순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가 보여 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교육자적 헌신은 바람직한 교사의 전범으로 묘사되고 있다.<sup>21)</sup>

### 3. ‘어머니’로서의 교사

북한에서 ‘혁명가’로서의 교사상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교사상은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이다. 북한의 교육학 이론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sup>22)</sup> 즉 교사의 역할 중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생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북한에서 인생 안내자로서의 교사는 ‘어머니’로 형상화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일은 교사가 학생들의 정치사상적 지도를 담당하는 ‘혁명가’일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어머니’일 때 가능하다. 이것이 북한에서 이상적인 교사로 여겨지는 “혁명가”이자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이다. 김정일은 ‘어머니’로서의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원은 어머니다운 품성의 소유자가 되여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먹고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전도에 이르기까지 늘

21) 소설의主人公 인순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숨은 혁명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 “조국에 화원이 만발했을 적에 못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화원을 가꾼 교육자의 노력과 사랑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화원을 가꿔낸 것으로 행복할 우리 교원들이 아닌가.” 최상순, 『나의 교단』(평양: 문예출판사, 1982).

22) 한선희·김영준, 『교육심리』(평양: 교원신문사, 2001), 384쪽.

마음을 쓰며 보살펴줍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누구보다 속을 태우면서 열번 백번이라도 타이르며 끝까지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교원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교원들이 학생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될 때 요구성도 더 높일 수 있고 규률도 엄격히 세울 수 있습니다.”<sup>23)</sup> 즉,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세심하고 헌신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랬을 때 학생들은 생활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치사상의식 전반에 걸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데, 그 첫번째는 교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포괄적이며, 교육과 양육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학교 교사, 특히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학과 공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부모로서 자녀의 공부를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백에 하나 둘 정도”이며,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모든 것을 장악”한다. 우등생에 대해서는 소조를 조직하여 선행학습과 대학입학을 위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열등생이나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과 생활에 대한 개별지도를 담당한다.

학습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전 생영역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교사의 몫이다. 가정방문과 학부형회의를 조직하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실태를 알려주고 학생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교사의 기본적인 임무로 간주된다.<sup>24)</sup> 북한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같은 교사가 담임

23) 김정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1973. 7)”,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65쪽.

24) 집필위원회 편, 『사회주의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5), 296쪽.  
북한의 ‘학급 담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급 담임이 수행해야 할 업

을 계속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세세한 지도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 학급에 문제가 생겨 중간에 담임직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식된다.

교사는 적어도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학생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주요한 의논 대상이 된다. 담임교사는 부모의 불화나 병,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학생들의 가정문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때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도움도 준다. 학생들의 진학이나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교사 개인의 개인적인 “안면 관계”를 활용하여 취학이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주기도 한다.<sup>25)</sup> 교육 관련 잡지와 영화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등교하

무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3항은 ‘학생들에게 학과 성적과 품행 특히 사회사업 수행 정형과 언행에 대하여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개성적인 활동에 깊은 주의를 돌려 유용한 창작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 4항은 ‘학생들의 가정생활 정형을 조사 지도하며 특히 숙제 지도 및 가정에서의 사회사업 참가 정형을 일상적으로 관찰 지도할 것’, 11항은 ‘학생들에게 상벌을 놓게 적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언행에 대한 자신심과 반성심을 배양할 것’, 12항은 ‘학생들에게 교육 교양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의 통일을 기하여 학생들의 퇴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가정 방문, 학부형회의 소집을 수시로 조직 실시할 것’이다. 제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 교육부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규정 자료집』(동경: 학우서방, 1957), 45~46쪽.

25) 북한에서 대학 입학의 기준은 성적과 출신성분이다. 중학교와 기관, 기업소마다 입학 추천 ‘쁜뜨’가 배정되고, 중등학교에서는 대학입학 자격시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대학에서 본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추천한다. 각 대학에서는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입학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학입시의 일차적 관문은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쁜뜨’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쁜뜨’는 국가의 중앙계획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할당되지만, 고위 간부직인 경우에 ‘직권과 정실안면 관계’를 활용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1986년에 기준 입시관행 때문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간부자녀들은 실력이 낮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일은 이러한 관행이 교육은 물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

기 어려운 아이를 직접 업고 등교하거나, 부모의 병 등으로 인하여 결석이 잦은 학생의 가정일을 도와주고 가정방문을 하면서까지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의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sup>26)</sup>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적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사례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sup>27)</sup>

교사는 학생의 학업과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살피고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자이자 양육자로 위치지어졌다. 교사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을 “교사이며, 상담원이며, 노동일하는 오야지며, 농촌지원가면 작업 배치하는 사장이며, 물건 끌어들이는 창고장, 물건 구입하는 물자구입원”이며, “부모처럼 다 해야 된”다는

---

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도나 지구별로 예비시험을 치러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본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실력본위의 선발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학업성적이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직권과 정실안면관계’의 작용이 근본적으로 균절되지는 못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학급 반장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소홀히 하여 대학입학시험 대상으로 추천받지 못했지만 담임교사가 교육청 간부에게 부탁하여 ‘쁜뜨’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담을 말하고 있다.

26) 그러한 사례의 전형적인 예로, 2001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방영된 량강도 보천군의 고등중학교 교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학급 학생을 통학시키기 위해 학생을 업고 10여리나 되는 등·하교길을 다녔고 병치료도 적극 도왔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세 자녀를 둔 여교사로서 몸이 불편한 자기 학급의 학생을 자신의 친자식보다도 더욱 극진히 보살폈다는 점에서 사회적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연합신문』, 2001년 6월 21일자 참조.

27) 1980년대 후반기에 고등중학교를 다녔던 한 북한이탈주민의 담임교사는 공부를 못하거나 밀생을 부리는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면서 “밥도 먹여주고, 잘 때도 같이 자고, 집에서 과외 지도하고, 학교 올 때도 손잡고 같이 오”면서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을 지도했다고 한다. 그 결과 그 학생이 학업과 생활 면에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불량학생’이 ‘일어서’게 되는 주기가 3개월 정도였다고 한다. 장길남 구술, 2003.

말로 표현한다.<sup>28)</sup>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이 내포하는 두 번째 특징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특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바람직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혁명적 사제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혁명적 사제관계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한 측면은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과 존경”이며, 또 다른 한 측면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사랑과 믿음”이다. 이는 수령을 정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돋고 고락을 같이하는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sup>30)</sup>이라고 표현되는 당과 인민간의 후견·피후견인 관계의 수직적 권위 구조의 축소판에 다름 아니다.

교사는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수령의 ‘부모 형상’의 대리물이다. 수령의 권위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로 대체된다. 사회에서 모든 진리와 선이 수령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처럼 교실에서 모든 진리와 선은 교사에 의해서 제시된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회주의적 인재로 양성하는 ‘직업적 혁명가’인 동시에 “먹고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늘 마음을 쓰며 보살펴”주는 ‘어머니’로 형상화된다. 교사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믿음과 존경”的 표현이며, 이 교사-학생 관계의 연장선상에 “충성과 효성”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인민-수령의 관계가 놓여진다. 수령은 인민을 지배하지만 이 지배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가 아닌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은혜와 보살핌으로 형상화된다. 수령이 지니는 온정주의적 ‘부모 형상’은 지배를 합리화하는 매체이다.<sup>31)</sup>

28) 장경희 구술, 2003.

29) 한선희·김영준 편, 『교육심리』(평양: 교원신문사, 2001), 372~378쪽.

30) 김일성, “청소년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1961. 4)”,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31) 이만우, “북한사회 대중운동에서의 권력작용 연구”, 『현대북한연구』, 1998년 창간호.

부르뒤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며 세대간에 전수되어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성향을 규정짓는 습성의 총체를 ‘아비투스(arbitus)’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 부르뒤에 의하면 학습과정의 비가역성 때문에 교실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용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가정에서 습득된 아비투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며, 문화산업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되는 메시지를 수용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학교에서 습득된 아비투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sup>32)</sup> 이 점에서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통해 습득된 온정주의적 특질은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에서, 졸업 후 사회적 제 관계 속에서 맷게 되는 인간관계 및 질서를 규정짓게 된다. 서재진·김태일이 북한 주민의 인성적 특성으로 지적했던 ‘신민형 인간’은 학교의 교사-학생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 형상의 온정주의적 이미지의 내면화를 통해 그 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32) P. Bourdieu & J. C. Passeron, *La Reproduction*(1970), 『재생산』(서울: 동문선, 2000), 70쪽.

33) 학교 내 교사-학생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가부장제 온정주의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시기 사법학교에서 권장되었던 교사상과도 일치한다.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교사양성기관인 경성사법학교가 표방하고 있던 교육목표는 황도(皇道)를 체현하여 신민다운 자각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가 교육에 봉사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방침인 사도 3개 조(師道3箇條)로 감은봉사(感恩奉仕), 충용(忠勇), 효순(孝順) 등 천황주의 이태울로기의 핵심적인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성사법학교에서는 교사의 모범으로 폐스탈로치가 꽂혔는데, 이는 인격의 발달이나 인식의 과정에 주목한 그의 교육이론이나 직관에 기초한 교육방법론 때문이 아니라 폐스탈로치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무한히 현신하는 성직자적 교사의 전형으로 가족주의적 국가관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신민을 사랑하고 신민은 이에 보답하여 자식처럼 군주를 따르며, 교사는 부모처럼 현신적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자식처럼 교사를 따르는 것, 교사는 위로는 신민으로서 자식된 마음으로 천황의 은덕에 대해 “충군애국의 지성”으로 “감은봉사”해야 하고, 아래로는 어버이로서 학생에 대하여 폐스탈로치와 같이 오직 무한한 애정과 현신으로 교육에 임하는 것, 이것이 식민지 시기 교원양성기관이 표방했던 교사상이

남한의 한 정치학자는 근대 민족국가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UN 사무총장 - 미국대통령 - 박정희 한국 대통령 - 김종필 혹은 정일권 국무총리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 - 아버지 - 나”로 이어지는—이 성장기 학교교육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분석한 바 있다.<sup>34)</sup> 이 수직적 권위구조의 계보 속에서 부자간의 관계가 나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매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학생들의 삶의 전 영역을 통제, 관리하는 권력의 소유자인 동시에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피는 ‘어머니’로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통하여 개개인에게 체감되며 흡인된다.

## 4. 교사의 사회적 지위

### 1) 지식인으로서 교사의 계층적 지위

북한사회에서 교사는 ‘인테리’ 또는 ‘근로 인테리’ 계층에 속한다. 북한에서 지식인은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계층으로서 다른 계급에 봉사하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지식인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을 하는데, 지식과 기술은 일단 사람에게 체득되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식인은 이중성과 동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sup>35)</sup> 사회주의사회인 북한

었다.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56~67쪽.

북한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가부장제 온정주의적 질서가 얼마만큼 식민지 시기의 관행과의 연속선상에서 배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34) 전인권, 『남자의 탄생』(서울: 푸른숲, 2003), 174~187쪽.

35) 이교덕, “북한의 지식인관과 북한변화에서의 지식인의 역할”, 『북한조사연

에서 지식인은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연구를 하고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근로자”<sup>36)</sup>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한 성원”이라고 규정된다.<sup>37)</sup> 그러나 지식인의 정신노동은 생산실천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노동의 과정이 개별적이며 노동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혁명성이 부족할 수 있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8)</sup> 지식인들은 또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들을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사상의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본다.<sup>39)</sup>

지식인을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주체인 동시에 끊임없는 통제와 사상적 개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방 후 북한에서는 한편으로는 ‘오랜 인테리’ 출신의 교사에 대한 사상교양과 재교육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농민 속에서 ‘새로운 인테리’ 교사층을 형성하는 것이 교원 양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해방 후 북한 교육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인적 구성 면에서 식민지

---

구』(2002년 7월), 317쪽.

36)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찰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8. 10)”,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72쪽.

37)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찰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8. 10)”,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57쪽.

38)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 7)”,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268쪽.

39)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9쪽.

시기와 단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존 교사 출신자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사층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던 것은 또한 의무교육제 확대에 따른 교사의 급증 및 총원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시기 교사 출신자들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북한의 교원집단으로 재편되었다. 1946년 6월 현재 해방 이전의 교사 경력자는 인민학교가 59%, 중등학교가 65%였는데,<sup>40)</sup> 이들은 모두 ‘오랜 인테리’로서 교양과 개조의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 시기 교사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인테리의 혁명성을 믿”는 동시에 “결함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고 투쟁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sup>41)</sup> 이 시기의 교원 총원 정책은 식민지 시기 교사 출신자를 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한 지식인의 월북을 유도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sup>42)</sup>

그런데 해방 후 북한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되었기 때문에 ‘구인테리’를 표용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교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과 때로는 임시방편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사층, 즉 ‘새로운 인테리’를 단기간에 양성해내었다.

해방 직후에는 당시 인문계열의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단기간의 사범교육을 실시하거나 일부 고급중학교 상급반을 사

40)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206쪽; 이향규,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교육기회의 확대과정과 특징”, 『연구노트』, 제14호 (서울: 한국교육사고, 2001), 219쪽.

41)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7쪽.

42)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북한 고등교육 체계의 형성에서 월북한 남한 출신 지식인이 담당한 역할에 대해서는 김기석, “해방후 분단국가교육체제의 형성, 1945~1948 -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사대논총』, 제53집(1996) 참조.

범반으로 개편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초등교원을 대규모로 양성했다. 대학에서는 단기 중등교원 양성반을 설치하여 중등교원을 확충했다.<sup>43)</sup> 1946년 전반기 교육국의 교원충원 계획안을 보면, 새학기 인민학교 부족 교원 3,120명 중에 615명은 중등학교 졸업생으로 교원 양성, 294명은 6~8개월 과정의 임시단기양성소에서 양성, 사범전문학교 졸업생 80명, 2,000명의 중등학교 수료자들에게 3개월의 사범교육 실시, 겸직 131명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겸직자가 모두 교원자격자라고 가정하여도, 교사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전체 수요의 7%에 부과했던 것이다. 중등학교 부족교원 987명 중 타분야에서 초청 또는 겸임하는 방식으로 477명, 8개월 양성소에서 120명 양성, 임시단기 양성소에서 400명 양성 등으로 계획했다.<sup>44)</sup> 자격 교사의 부족은 의무 교육의 지속적 확대로 인해 이후 시기에도 줄곧 지속되었다.

교육기회의 전면적인 확대와 분배 정책은 식민지기에 극도로 억압되었던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조직함으로써 이들을 국가 건설로 자발적으로 동원해내는 해제모니 확보의 중심적인 기제로 활용되었다. 공교육의 확대와 교육 기회의 균등 분배 정책은 이후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초등의무교육제 실시가 계획되었으나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실시가 지연되었다가, 1956년 8월에 4년간의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1958년 11월에는 4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1967년 4월 1일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1973년에 11년제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11년제 의무교육은 1975년 9월에 이르러 전국적 범위에서 완전히 실시되었다.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

43) 박형성,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무료 의무교육제의 빛나는 실현”, 『우리 나라에서의 링스-레닌주의 교육 리론의 창조적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2), 58쪽.

44)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209~210쪽.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학제가 개편되어 의무교육이 연장되는 시기에는 한꺼번에 대량의 교사 수요가 발생했다.<sup>45)</sup> 해방 직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등 교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을 증설하고, 단기교원양성소를 통하여 교사 양성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기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했다.

교사의 급속한 충원은 교사계층의 정치사상적 측면과 지식, 기술 수준 면에서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김일성은 1965년 2월 고등교육성 당총회 연설에서 교사들 속에서 “소부르죠아 사상”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혁명화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sup>46)</sup> 1967년 7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무 사람이나 교원으로 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sup>47)</sup> 여기에서 ‘아무 사람’이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김일성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1967년의 ‘갑산파 사건’ 이후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도 대대적인 ‘오랜 인테리’들이 숙청이 단행되었고,

45) 의무교육의 확대 시점을 중심으로 교사 수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해방 직후 8,596명이던 인민학교 교사수가 1년 만에 18,505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 1956년에는 33,133명으로 증가했다. 중등학교 중 중학교의 교사수는 1945년에 1,460명에서 7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된 1958년에 30,005명, 의무교육이 9년으로 확대된 1967년에 42,630명(후기 중등교육기관의 교사수는 제외된 수치임), 1973년에 76,490명으로 증가했다. 이항규,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연구노트』, 제14호(서울: 한국교육사고, 2001), 25~29쪽 통계 참조.

46) 예를 들어 대학교원들이 일년에 1,000시간 강의하는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회의가 많다고 불평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노동계급화, 혁명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1965. 2)”,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226~228쪽.

47) 김형직사범대학 사범교육연구소, 『사범교육에 대한 위대한 령도』(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992), 123쪽.

그 후속 작업으로서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문제가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었다. 교원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정책은 ‘오랜 인테리’만이 아닌 ‘새 인테리’에게도 적용되었다. 김일성은 1968년의 연설에서 교원들을 혁명화하여 “교과서를 잘 쓰는 사람, 지난날의 책들과 유물들을 옳게 평가하는 사람,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분이 좋은 사람을 교원으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도 끊임없이 사상교양을 하지 않으면 “혁명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48)</sup>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교육부문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이미 1960년대 후반에 김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천명된 바 있는데,<sup>49)</sup> 1970년대 중반에 11년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화되면서 당면한 교육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 졸업자 정도의 지식수준과 문화적 소양을 갖도록 만들어 지식인과 노동자들 간의 문화 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지식인이라는 계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sup>50)</sup> ‘온 사회를 인테리화’함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지식인의 동요가능성과 이중성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각된 것은 소

48)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1968. 3)”,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323쪽.

49) 김일성, “학생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는 과학지식을 배워야 한다(1967. 11)”,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50)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2쪽.

연방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였다. 1992년 12월에 북한체제 수립 후 최초로 ‘조선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지식인들의 사상적 동요 가능성을 예비검속했다. 이 대회에서 노동당 중심의 북한체제 고수와 김정일 보위를 위한 지식인의 임무가 강조되었다.<sup>51)</sup>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20일부터 사흘 간 전국교육일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교원들이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간직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노동계급화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정책의 견결한옹호자, 철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52)</sup>

1997년 1월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으로 시작된 김정일의 권력승계 작업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재추대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강성 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목표에 따라 김정일의 인테리 정책도 전문기술 인테리의 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51) 김명수, “북한 지식인 계층의 역할변화 전망”,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정책 연구』, 제121호(1996), 193쪽.

52) 『로동신문』 1992년 9월 21일자. 지식인의 이중성에 대한 경계와 지식인을 혁명화에 할 것에 대한 강조는 이후 시기에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김정일의 권력승계작업이 가속화되었던 1997년에 다시금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일환으로 1997년 6월에는 지식인의 역할에 관한 김일성 문헌발표 30주년 기념보고대회에 이어 각 시도별 인테리 문제 연구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97년 11월 19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사회주의붕괴에서 인테리들이 남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식인들의 반혁명화를 거론하고, 이를 비판했다. 이 사설에서는 지식인들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인재이지만 로동계급의 당이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보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우환거리로 된다”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부정적 작용’과 큰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기부터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 시기까지 지식인들에 대한 정책은 사상적 경향에 대한 통제에 방점이 두어졌다.

최근에는 교육 혁신과 교육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모든 학교들을 선군시대의 교육기관답게 꾸린다”는 방침에 따라 경제난의 심화로 과행화되었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sup>53)</sup> 또한 교사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한 조치로 2003년에는 ‘10월 8일 모범 교수자’ 칭호를 제정하고 교사 500여 명에게 칭호를 수여했다. 이 칭호는 김정일이 2002년 10월 8일에 양강도 삼지연군의 무봉중학교를 시찰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후진 양성, 전공분야의 자질, 수업 지도 방법, 학생 지도 준비, 주어진 과제 수행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교사들에게 수여된다고 한다.<sup>54)</sup>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강화와 교수 방법 연구 활성화 등 교사들의 사상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몇 가지 조치들은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변화가 비록 정치사상교육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과거 시기의 교육 개혁 정책과는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위기 극복과 사상적 결속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재 양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교사상도 교육의 당면 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8일 모범 교수자’ 칭호의 기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공분야의 교수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교육방법을 강조하는 경향은 교사의 혁명성이나 육친적 애정을 강조했던 기존의 교사상과는 달리 교직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53) 『연합뉴스』, 2004년 6월 23일자 참조.

54) 『연합뉴스』, 2003년 10월 22일자 참조.

## 2)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바탕이 되는 요소로서 교사들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교사들의 임금 및 생활 수준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 수준은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탈북자 증언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만을 파악할 수 있다. 교사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교사들의 임금 수준은 자격 교원인 1~3급 교원 125~140원, 4~5급 교원 105~125원으로 북한의 일반 노동자 임금인 80~100원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sup>55)</sup>

임금 이외의 사회적 복지에 있어서 교사들은 경제난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계층에 비하여 비교적 큰 사회적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교원 양복점, 교원 상점들을 별도로 설치하여 교원들에게 의복, 구두, 생활필수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었으며, 일반 상점에도 “교원들에게 우선 봉사하여 드립니다”라고 써붙여 놓았다고 한다. “겉옷을 다른 사람은 하나 주어도 교원은 두 벌 주고”, 교사들에게는 양복 천도 충분히 공급하여 교사들의 바지 통이 가장 넓었다고 한다.<sup>56)</sup> 이러한 교사 우대 정책은 1970년대 말까지는 실효성 있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으로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1994년 11월에 교원식량 공급소를 설치하여 12월부터 식량을 공급해주었으나, 식량난으로 인해 곧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sup>57)</sup>

55)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184쪽.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시기별 임금 인상 폭과 교사의 그것을 비교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56) 장경희 구술(2003).

57) 친정순, “북한에서 교원으로 산다는 건”,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193쪽.

북한사회에서 교사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임금 수준보다는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1962년 10월 내각 4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sup>58)</sup> 예를 들어 당간부가 “교원들을 본체만체하면서 회의주석단 같은데도 한번 앉히지 않”거나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있는 데서 교원들을 육설하”는 것을 비판하고 당간부들부터 교사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교사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택, 의복 공급 등 교사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당 조직들과 민청 조직에서 청년들에게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려주어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 진학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1973년 연설문에서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sup>59)</sup> 그는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내세워 주는 기풍”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모범적인 교사들에 대해 출판물과 방송 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국가적 표창을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학생들이 “담임선생의 생일날에 집에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설날에 년하장도 보내며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들를 때에는 모교를 찾아 교원들에게 인사도 하도록” 하는 등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북한 지도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교사를 존경하고 내세워 주는 기풍”은 경제난 이전까지는 북한 사회의 보편적인 분위기였던 것

58)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 10)”, 265 ~ 269쪽.

59) 김정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1973. 7)”,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73 ~ 75쪽.

으로 보인다.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회고담에 나타나는 교사들에 대한 인식도 공식적 담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바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1980년대 후반기에 고등중학교를 다닌 한 북한이탈주민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스승 말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주민의 생각이며,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큰 편이어서 체벌을 해도 부모들이 항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교사들은 대부분 “우리의 손에 아이들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학급 학생의 생활과 학업 지도에 대하여 부모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학생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를 존경하고 따랐다고 한다.<sup>60)</sup>

교사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1985년 이전까지는 교직이 “괜찮았”는데 1980년대 후반에 중국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의식이 흘러들어 오면서 무역이나 상업분야의 직업에 밀리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교사들이 “너도나도 그만두겠다”고 하게 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sup>61)</sup> 이 이전 시기에는 교직도 인기가 있고, 사범대학을 졸업할 경우 당간부 선발에 유리했기 때문에 사범대학의 입학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교사들의 사회적 지

60) 담임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은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인사하는 각도부터 다르”다는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통해 읽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고등중학교를 다녔던 한 북한이탈주민이 이야기해 준 일화는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이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반 학생들의 과외수업을 지도하던 교사가 교장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끝에 뺨을 맞자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교장을 구타하여 크게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존경하는 담임교사가 손찌검을 당한 것을 침울 수 없었기 때문에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다. 장길남 구술, 2003.

61) 이수철 구술, 2001.

위와 직업으로서의 인기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교사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면서 급격하게 변화한다. 체제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사회의 공식담론의 지면 위에서는 교사들의 동요가능성을 차단하고 혁명가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언설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그 무대의 뒤편에서는 교사 스스로의 정체감과 교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 위기였다. 교사들에 대한 식량 배급은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편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 되자 그것도 중단되었다. 조직생활을 통해 교사들의 학교 이탈과 규율 이완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배급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한 교사들의 학교 이탈을 막기 어려워졌다. 어떤 교사들은 결근에 대하여 추궁하는 학교 간부에게 “쌀이 많으면 쌀 좀 달라,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sup>62)</sup> 교사들의 근무 규율 이완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자 공식으로는 교사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되고 혁명가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 한두 주일씩 식량을 구하라고 휴가를 보내고, 남은 교사들이 수업을 맡는 미봉책을 사용하여 수업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나갔다.<sup>63)</sup> 심지어는 수업을 팽개치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교사를 학생들이 찾으러 다니기도 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의 식량을 마련해주거나 운동장을 갈아서 밭을 만들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교사가 장마당에 나와 집에서 만든 빵이나 술 등을 파는 것을 보고 “선생도 별 볼 게 못 된다”고 생각하기 시

62) 이수철 구술, 2001.

63) 김희영, “끊임없는 업무, 배고픈 교원생활”, 한만길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183쪽.

작했다고 한다.<sup>64)</sup> 생산노동 분야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교사들은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내다팔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확보할 수 없었다. 배급이 중지된 상태에서 교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장사 수단을 확보하든지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량난이 고조되면서는 고급 담배나 술 등을 받고 학생들의 낙제를 면하게 해주는 “암거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표현을 빌면 경제난으로 인해 교사들의 “비극”이 진행되고, “아름답던 풍조들이 허물어”졌다.<sup>65)</sup>

## 5. 나오며

이상에서 공식적 담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이상적인 교사상과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사상이 실제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일반 주민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과 어떤 지점에서 부합되고 어긋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사상은 혁명가로서의 교사상과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이다. 이 두 가지 교사상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보다는 북한의 사회정치적 변화 속에서 교사들에게 요구되어온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자질이다.

일반적으로 교직의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사상은 성직자관, 전문직관, 노동자관으로 구분된다. 성직자관은 교직을 특별한 소명 의식을 가진 직분으로 보며, 교사는 인간의 인격 형성을 돋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 정신에 관련된 활동에

64) 김형석 구술, 2003.

65) 장길남 구술, 2003.

전념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전문직관은 교직이 특정한 직업의식과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직업윤리를 지니는 전문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노동직관은 교사의 직무와 지위가 노동자와 동일하다는 인식하에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북한의 교사상은 교직을 혁명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분으로 보며, 교사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끊임없는 헌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된 성직자관, 즉 성직자관의 사회주의 판본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교사상이 병존하고 상호 경합하는 가운데 교사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sup>66)</sup> 그러나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변형된 성직자관인 혁명가이자 어머니로서의 교사상만 허용될 뿐이었다. 교직을 전문직이나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은 교사를 “단순히 지식이나 전달하는 사람”, “밥벌이를 위하여 교단에서 지식과 기술을 파는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줄곧 비판되어왔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교사상을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사양성교육과 재교육, 기타 사회심리적 강화기제를 통해 공식적인 교사상이 일관되게 교사들에게 부과되었고, 이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한 사회체계의 질서를 옹호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비판자로서의 지식인은 경쟁적인 담론

66) 한국 사회에서도 이 세 가지 교사상이 병존해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교사상 문제가 교육계의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교사 중 78.4%가 교직을 전문직·준전문직으로, 16.8%가 성직으로, 4.8%가 노동직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인의 79.6%가 전문직·준전문직으로, 14.8%가 성직으로, 5.6%가 노동직으로 보고 있다. 김민희, “한일간 교직관 및 교사상 비교연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의 대변자가 되어 기존의 가치체계에 저항하고 대안적 질서를 모색한다. 반면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은 특정한 권위구조를 합리화하는 정당화의 논리를 창출해내고 자신들의 능력을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북한에서 강조해온 혁명가이자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은 교사 집단이 지식인 고유의 비판적,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는 대신에 기능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재생산의 첫바퀴를 돌리는 기능만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왔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대외관계의 어려움, 식량난과 경제적 파탄, 김일성 사망 등 가중되는 국가적 난관 속에서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교사들의 정체성과 교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변화했다. 북한의 ‘인테리 이론’에서 말하는 지식인의 혁명성과 동요성 중 후자가 전자를 압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뺑’이었는데, ‘뺑’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무너져내린 교사의 자긍심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고행화되었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4월에 황해남도 해주시에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해주 제2교원대학을 신설하는 등 교사 양성기관을 정비했고, ‘모범교육시·군 칭호 쟁취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공식 매체를 통해서 여전히 혁명가이자 어머니로서의 교사상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거 시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교사와 학교교육이 제 위치를 찾고 진정으로 사회를 재건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사상으로 회귀하거나 교사들의 기능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교사상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즉, 교사들이 지식인 본연의

비판적 사고와 자율성을 회복함으로써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작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학교를 현 사회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권력과 사회적 권력 갖기를 도와주는 민주적 장소”<sup>67)</sup>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교사가 수행하는 기능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변화의 관건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연대의 고리를 창출함으로써 해결해갈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

## 참고문헌

### 〈북한 문헌〉

- 교원신문사 편, 『주체 시대의 교원 혁명가들 3』(평양: 교원신문사, 1987).  
교육도서출판사 편, 『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_\_\_\_\_,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대하여(1971. 12)”,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김일완, 『혁명의 씨앗을 키우며』(평양: 교원신문사, 1963).  
김정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1973. 7)”,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김형직사범대학 사범교육연구소, 『사범교육에 대한 위대한 령도』(평양: 김형직사

67) H. Giroux, *Teachers as Intellectuals Toward a Critical Pedagogy of Learning* (1988), 이경숙 옮김, 『교사는 지성인이다』(서울: 아침이슬, 2001), 242쪽.

- 범대학출판사, 1992).
-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 로동신문사 편, 『교수론』(평양: 로동신문사, 1948).
- 리상걸, 『사회주의와 지식인문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리영복, 『교육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박상암·우제국·전광춘, 『두 영웅 교원』(평양: 교원신문사, 1965).
- 박창호 편, 『사회주의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우리 당의 교육정책』(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 교육부 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규정 자료집』(동경: 학우서방, 1957).
- 정성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집필위원회 편, 『사회주의 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5).
- 최상순, 『나의 교단』(평양: 문예출판사, 1982).
-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한선희·김영준 편, 『교육심리』(평양: 교원신문사, 2001).
- 황초중·안창국, 『사회주의학교관리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6).

#### 〈한국 및 외국 문헌〉

- 김기석, “해방후 분단국가 교육체제의 형성, 1945~1948 -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사대논총』, 제53집(1996).
- 김명수, “북한 지식인 계층의 역할변화 전망”,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정책연구』, 제121호(1996).
- 김민희, “한일간 교직관 및 교사상 비교연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김희영, “끊임없는 업무, 배고픈 교원생활”,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 박가연,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연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북한연구소, 『북한의 계급정책』(서울: 북한연구소, 1977).
-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 안창선 외,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

- 문, 2004).
- 이교덕, “북한의 지식인관과 북한변화에서의 지식인의 역할”, 『북한조사연구』, (2002년 7월호).
- 이만우, “북한사회 대중운동에서의 권력작용 연구”, 『현대북한연구』(1998, 창간 호).
- 이종재 외, 『한국인의 교육관』(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 이향규,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연구노트』, 제14호(서울: 한국교육사고, 2001).
- \_\_\_\_\_,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 전인권, 『남자의 탄생』(서울: 푸른숲, 2003).
- 조정아, “산업화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2003).
- \_\_\_\_\_,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4).
- 차문석, “북한의 근대 정치경제와 노동 영웅”,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 권 교육·연구단 편, 『근대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서울: 청어람미디어, 1990)
- 천정순, “북한에서 교원으로 산다는 건”,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 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
- Bourdieu, P. & J. C. Passeron(1970), La Reproduction, 『재생산』(서울: 동문선, 2000).
- Giroux, H., *Teachers as Intellectuals Toward a Critical Pedagogy of Learning*(1988), 이경숙 옮김, 『교사는 지성인이다』(서울: 아침이슬, 2001).
- Harris, K., *Classes and Class Struggle, Teachers and Class*(Routledge & Kegan Paul, 1982), 이인효 외 옮김(1991), “계급과 계급투쟁”,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 Karabel, J., “Revolutionary Contradictions: Antonio Gramsci and the Problem of Intellectuals”, *Politics & Society*, Vol. 6, No. 1(1976), 임영일 편역, “그람씨와 지식인 문제”, 『국가·계급·헤게모니』(서울: 풀빛, 1985).

#### 〈구술자료〉

- 장경희(2003), 조정아 채록
- 장길남(2003), 조정아 채록
- 김형석(2003), 조정아 채록
- 이수철(2001), 한국교육사고 채록

**Abstract**

## Between the ‘Professional Revolutionist’ and ‘Unbelievable Intelligentisa’

—The Image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eachers in North Korea

Jeong Ah Cho(Education Research Institute of SNU, Educ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rable images and social status of teachers, and the common opinion about the teaching profession in North Korea. Especially, I focused on the change of teac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view of teaching profession in the 1990s' in order to estimate the durability and the change in North Korean education.

In North Korea, teacher is regarded as not a person who only transmits knowledge but a ‘professional revolutionist’ who guides students’ political ideas. Teacher is also regarded as a ‘mother’ who understands and cares students’ whole life. The teaching profession is considered as a kind of religious vocation which has the call of training the next revolutionary generation. The unconditional devotion is emphasized rather than the professionalism, autonomy and labor right of teachers. In this official discourse, teachers have performed the function of social reproduction. At the same time, the teacher has been

classified as double-faced intelligentsia who has progressiveness and conservativeness.

Since the late 1980s'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eachers. The teacher was a traditionally much respected social group in North Korea. But in 1990s', the rationing was discontinued, and the schooling was crippled because of the economical hardship.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eachers fell off, and the social respect and self-esteem of teachers faded away.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ing, the state endeavors to increase teachers' teaching ability and the special knowledge on the subject matter one the hand, and emphasizes the image of 'professional revolutionist' on the other hand. But it is yet to be known whether it is effective as the past days. It is not the revival of teacher's image or the emphasis on the functional professionalism, but the restoration of teachers' autonomy and ability of critical reflection which is helpful to the national reconstruction through education.

Key Words : North-Korean education, the image of teacher, socioeconomic status of teacher

### **조정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및 강사이며, 2003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산업화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논문을 받았다. 주요 논저로 『근대 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공저, 2004),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2004),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2004), “북한의 학교규율과 ‘사회주의적 노동자’ 만들기”(2003), “산업화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2003) 등이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북한의 학교교육 및 노동교육과 남북한의 통일교육 등이며, 특히 남북한의 학교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